

# 금호타이어 채권단 “해외 매각”...노조·지역사회 “절대 안돼”

### “손실 최소화·유동성 확보 위해 더블스타와 협상이 최선”

### 정치권 노동계 “지역경제 근간 흔드는 문제...재검토해야”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에 경영권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GM, 쌍용차 등 해외 매각을 추진했던 기업들의 기술 유출과 고용 불안 등의 전례를 감안, 결국 겹겹이 낀 채권단의 우려는 우월한 전망도 나온다.

◇모두 반대하는 해외 매각, 왜? =금호타이어에 대한 해외 매각 방침은 노조와 지역 경제계가 부정적 입장을 거듭하고 있는 민감한 이슈다. 노조는 사측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합의하면서도 “해외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않겠다”며 “해외 매각을 추진할 경우 노조와 합의해 진행한다”는 조항을 약속받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여왔을 정도다. GM, 쌍용차 등 해외 매각된 국내 기업들의 ‘뒤끝’이 좋지 않은 사례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채권단은 그러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외 매각이 최선으로, 더블스타와의 협상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며 매각 협상 진행 사실을 공개했다.

우선,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계속기업 가치(460억원)가 청산가치(1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채권단 체제에서 정상화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채권단 중심으로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추진할 경우 1조5000억~1조85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신규자금 중 7500억원을 중국 법인 정상화에 투입해야 하는데도, 중국법인 정상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이상 돈을 대기도 벅찬 상황에서 채권단 손실을 최소화하고 중국법인 정상화를 통한 경영안정성 제고, 투자 유지를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 매각, 더블스타와의 협상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돌고 돌아 더블스타, 왜? =더블스타와의 매각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산은 등 채권단은 지난해 1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더블스타를 선정할 바 있다. 당시 더블스타는 인수대금으로 9550억원을 제시했다. 결국 당시보다 3000억원 낮은 금액에 경영권을 넘겨받게 되는 셈이다. 채권단은 여기에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중국기업과의 협상 실패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러 기업들에 의사를 타진했지만 더블스타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게 채권단 설명이다.

◇해외 매각 반대하는데 어디로? =채권단은 더블스타와의 협상을 추진하면서

###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투자조건

투자금액	6,463억원(주당 5,000원, 지분을 45% ⇒ 채권단 23.1%)
계약금	323억원(투자총액의 5%로 지급보증서 제출)
고용보장	3년 고용보장
실행조건	정부승인(방산관련 신자부 승인 등), 상표사용, 채권연장 등
신규자금	시설자금 용도 최대 2,000억원
매각제한	더블스타 3년, 채권단 5년(단, 4년이후 매년 50%씩 매각)
최대주주	더블스타는 5년 경과 또는 채권단 Exit까지 최대주주 유지

〈산업은행 제공〉

“노조가 반대하면 자본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게 더블스타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계획서 제출도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

노조가 해외 매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채권단의 해외 매각 성사가 가능할 지는 회의적이다. 여기에 “해외 매각 외 대안이 없다”는 채권단 입장을 고려하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경제계 우려 =지역 사회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해외 매각 철회를 위해 총파업과 광주시민 범시민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은행이 해외매각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역 정서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금호타이어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해외매각은 노조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만큼 노조의 동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동훈 사무처장도 “더블스타가 낡고 생산성마저 떨어진 광주공장에 신규 투자를 할 리가 없다”며 “5년 정도 버티다 결국 지역채권정부에 손실비를 메워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제2의 지엄사태 재현을 우려했다.

더블스타주주 강기정 전 의원도 “금호타이어 매각은 과거 중국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처럼 자본유출과 기술탈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노사 합의를 존중해 지역경제와 호남민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블스타 재매각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노조, 고공농성 돌입 금호타이어 노조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해외 매각 방침에 반발, 고공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4일 광주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송신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산업진흥회, 광주기업 해외진출 지원

### 미국·캐나다 등 14개국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광산업진흥회가 광주지역 광산업 기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28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미국·캐나다·인도·러시아·일본 등 해외 14개국 바이어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상반기 유망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회는 한국 광융합 산업 제품

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자리로, 조명·가로등·집어등, 공장 설립 등의 분야에서 수출 상담과 195만불 상당의 MOU 체결로 이어져 국내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산업진흥회는 또 일본(LED Next Stage), 중국(Laser Photonics), 미국(OFC 2018), 독일 (Lighting&Building) 등에서 열리는 광산업 관련 전시회에 공동관을 구성, 국내 광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 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국제광융합엑스포&비즈니스플라자(지난해 6월), 광주광산업로드쇼(지난해 12월), 동남아 및 미주 무역사절단 등을 추진해왔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한전공대 설립 마스터플랜 우선협상자 선정

### A.T.Kearney-삼우건축...11월까지 완료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 김시호)는 4일 한전공대(가칭) 설립 마스터플랜을 만들 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A.T.Kearney-삼우건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국제경영입찰을 거쳐 글로벌 컨설팅 용역사와 국내 건축사의 분담 이행방식으로 2개 업체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 포인트로 차량 수리...기아차 ‘K-스타일 케어 서비스’

기아차가 멤버십 포인트로 손상된 차량을 고칠 수 있는 ‘K-스타일 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

‘K-스타일 케어 서비스’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출고일 기준) 자기부담금 없이 차량 외관 손상 수리를 보장받는 신차 케어 프로그램으로, 신차 구매 시 적립받는 기아레드멤버십 포인트로 가

한전은 이들 협상대상자와 기술과 가격협상을 거쳐 이달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용역은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대학설립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한전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지 등을 선정하게 되며 한전공대는 2022년이 개교 목표다. /최재호기자 lion@

입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시 차종에 따라 ▲경형 3만1000 포인트 ▲중형 4만6000 포인트 ▲중·대형 5만7000 포인트가 차감되며 출고 후 1년 이내 발생한 외관 손상에 한해 최대 3회까지 ▲경형 100만원 ▲소형 150만원 ▲중·대형200만원 한도 내 보상받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주시경 신임 광주본부세관장 취임

주시경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5일 제 37대 광주본부세관장에 취임했다.



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이다.

주시경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5일 제 37대 광주본부세관장에 취임했다. 주 신임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안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관세국경관리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보호무역의 파고를 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행정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하고 즐겁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친화력을 겸비,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관리자로 지

주 세관장은 서울출신으로 휘문고등학교와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외환조사과장을 거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상해 총영사관 영사를 지냈다. 이후 관세청 대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대구본부세관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한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명상 시공이 갖춰진 동·서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IANG HOTEL